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14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4. 10. 13.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실학박물관 개관15주년 기념 특별공연 《실학연희》		2	있음 (0매)	https://silhak.ggcf.kr	부 서 : 기획운영팀 사업담당 : 이문희(579-6026) 홍보담당 : 박한별(579-6044)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공연 《실학연희(實學演戲)》

- ▶ 10. 26.(토)~10. 27.(일) 14시, 실학박물관 다산정원
- ▶ 18세기 동시대를 살았던 <정약용과 베토벤의 만남>
- ▶ 전통예술의 백미 <전통연희와 함께하는 실학>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의된 박물관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특별전시와 학술행사, 체험교육 등을 개최해 왔으며 2024년 10월 26일과 27일에는 실학박물관 야외 다산정원에서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공연 《실학연희》를 개최한다.

첫날인 26일은 18세기 동시대를 살았던 실학의 대표적 인물 정약용과 서양 음악의 악성 베토벤의 만남을 주제로 정약용 역(한정현)과 베토벤 역(최재모)으로 분한 배우의 등장으로 조현서 학생의 피아노 연주와 코리언컬처리더스 소속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가곡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둘째날은 전통연희와 실학의 만남을 주제로 <시락밴드>의 공연과 유네스코 무형 유산인 전통줄타기 공연과 영.호남 대표적 전통춤 영남한량무와 소고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모두를 위한 박물관’,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지향해 온 실학박물관은 이번 15주년 특별공연 《실학연희》를 통하여 새롭게 정의된 박물관의 역할에 한층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날 <정약용과 베토벤의 만남> 10월 26일(토) 14:00 ♣

18세기 동시대를 살았던 실학의 대표적 인물 정약용(1762~1836)이 서양 음악의 악성 베토벤(1770~1827)을 만나 서로를 소개하며 대담을 나누고 오늘 행사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공연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공연을 진행한다.

○ 마과회통과 비창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은 1798년 베토벤이 작곡한 곡으로 드라마틱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곡이며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가 드러난 심리주의적 소나타 피아노곡으로 1798년 그해 정약용은 홍역과 두창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집필했다는 의서인 <마과회통>이 발간된 해이기도 하다.

1801년에 작곡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은 <비창>, <열정>과 더불어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리는 대중적인 작품이다. 느린 템포로 시작하는 서정적인 1악장의 분위기 때문에 ‘월광’이라는 부제로 더 유명한 이 곡은 소나타 형식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베토벤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월광’, ‘봄’이 발표된 1801년은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39세)되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된 해이기도 하다.

○ 회혼시(回婚時)와 이히리베디히(Ich liebe Dich)

가곡 <Adelaide>는 베토벤의 가곡 중 <Ich liebe Dich>와 함께 대표적인 가곡으로 첫사랑을 꿈꾸는 듯한 설렘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베토벤의 이러한 정서는 30여년 뒤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불멸의 연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델라이데>의 마지막 노랫말은 베토벤의 변함없는 마음이 잘 표현되었다.

정약용은 아내 홍혜완과 결혼해서 60년간 함께 보냈고, 결혼 60주년 회원일을 기념하며 부인에게 바치는 <회혼시>를 바쳤지만, 회혼례 당일 눈을 감으며, <회혼시>는 그의 마지막 시가 된다.

프로그램 첫 곡은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의 주제곡인 ‘자산어보’를 작곡한 음악 영재 조현서(서울 대도초6)가 연주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Pathétique)>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피아니스트 윤연준이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Moonlight)>과 피아노 소곡 <엘리제를 위하여(For Elise)>를 연주후 피아노 반주에 맞춰 테너 김기선의 가곡 <아델라이데(Adelaide)>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이석중, 첼로 장우리, 피아노 김은찬으로 구성된 현악 3중주가 베토벤의 ‘봄’과 첼로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를 연주한다.

- 조현서(피아노) “자산어보” 테마곡 (2')
- F. Chopin Etude Op.10 No.5 (2')
- L.v. Beethoven Piano Sonata No.8 Op.13 “비창” 2악장 (5')
- F. Liszt Rigoletto Paraphrase (7')

윤연준(피아노)

L.v. Beethoven Piano Sonata No.14 Op.27-2 “월광” (14’)
For Elise “엘리제를 위하여” (3’40”)

성악: 김기선 (테너)

L.v. Beethoven Adelaide (7’)
Ich liebe Dich (2’30”)

현악3중주: 이석중 (바이올린)/장우리 (첼로)/김은찬 (피아노)

L.v. Beethoven Violin Sonata No.5 “봄” 1악장 (10’)
Cello Sonata No.3 Op.69 1악장 (13’)
Piano Trio Op.11 “Gassenharer” 1악장 (10’)

♠ 둘째 날 <전통연희와 함께하는 실학> 10월27일(일) 14:00 ♠

10월 27일(일) 공연은 창작국악, 무용, 줄타기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기획자 김솔지의 사회로 시와 음악. 시간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밴드 “시락밴드”가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다. 실학자들의 시와 음악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시락밴드는 ‘하담에서의 하직인사’, ‘나그네 신세 타령’, ‘울정주점’등 정약용이 강진 유배와 관련해서 남긴 시에 노래를 붙인 자작곡을 연주한다.

두 번째로 진주 오광대 예능보유자 강동옥의 영남 한량무 공연을 펼친다. 한량무는 조선시대 민속무용 중 하나로 과거 시험에 낙방한 한량을 비롯해 별감과 승려가 서로 기생을 띄려고 하는 행태를 담고 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에서 성행했다.

다음으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살풀이 전수자인 이지은이 남도소고춤 공연을 펼친다. 김평호류 남도소고춤은 남도 신명을 간직한 춤으로 전라도 해안 지역에 분포된 소고, 버꾸춤의 맥락을 이어받아 남도적 흥과 멋의 절정체를 이루며 호적시나위에 신명을 녹여내는 가.락.무 일체의 축제적 춤이다.

마지막으로 줄타기 공연 <판줄>이 펼쳐진다.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예능보유자 김대균 명인과 한산하 이수자가 대금, 가야금 등 삼현육각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신명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연을 펼친다. 줄타기는1976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우리 전통연희이다. 줄 위에서 기예 동작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익살을 섞어가며 던지는 재치 있는 말과 노래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여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이다.

실학박물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공연 외에도 지역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 및 지역주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포용적·참여적 박물관으로의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다학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역의 활동가와 단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실학박물관 김필국 관장은 “많은 도민들과 관람객들이 박물관 15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락 밴드(25')- 실학의 시로 음악을 만드는 밴드 / 사회 김솔지

- ‘하담에서의 하직인사’ - 귀양길에서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노래로 만든 곡
- ‘나그네 신세타령’ - 유배를 당한 본인의 신세를 타령하는 시를 노래로 만든 곡
- ‘울정주점 두 갈래 길’ - 두 형제가 유배를 가는 길에 울정주점 두 갈래길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로 만든 곡

영남 한량무 -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강동옥 (10')

남도소고춤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살풀이 전수자 이지은 (10')

판줄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줄타기 - 김대균.한산하 (30')

- 세 마당으로 구성 : 첫째마당(줄광대와 함께하는 줄타기 이야기와 줄고사 및 연주), 둘째 마당(어릿광대와 줄광대의 줄소리), 셋째마당(새 광대들의 즐놀음)

붙임 1. 공연 개요(프로그램)

붙임 2. 출연자 프로필

붙임 3. 사진, 포스터

붙임 1. 공연 개요(프로그램)

가. 10월 26일(토) <정약용과 베토벤의 만남> 프로그램

(1) 프로그램(구성 / 코리언컬처리더스 대표 김지현)

조현서 “자산어보” 테마곡 (2')

F. Chopin Etude Op.10 No.5 (2')

L.v. Beethoven Piano Sanata No.8 Op.13 “비창” 2악장 (5')

F. Liszt Rigoletto Paraphrase (7')

연주: 조현서 (피아노)

L.v. Beethoven Piano Sonata No.14 Op.27-2 “월광” (14')
For Elise “엘리제를 위하여” (3'40")

연주: 윤연준 (피아노)

L.v. Beethoven Adelaide (7')
Ich liebe Dich (2'30")

성악: 김기선 (테너)

반주: 윤연준 (피아노)

L.v. Beethoven Violin Sonata No.5 “봄” 1악장 (10')
Cello Sonata No.3 Op.69 1악장 (13')
Piano Trio Op.11 “Gassenharer” 1악장 (10')

연주: 이석중 (바이올린)/장우리 (첼로)/김은찬 (피아노)

나. 둘째 날 주제 <전통연희와 함께하는 실학>

(1) 프로그램

가. “시락 밴드”(25')- 실학의 시로 음악을 만드는 밴드 / 사회 김솔지

1) 구성: 건반 김민지, 관악 오초롱, 타악 민현기·김솔지, 소리꾼 송현주

2) 세부 곡

가) ‘하담에서의 하직인사’

정약용이 유배지 가는 귀양길에서 부모님 묘소에 들러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전한 마음을 담은 시를 노래로 만든 곡이며, 무장단으로 정약용의 마음을 담음

나) ‘나그네 신세타령’

정약용이 유배당하며, 한순간에 나그네가 되어버린 본인의 신세를 타령하는 시를 노래로 만든 곡으로 유배 중 4살짜리 막내아들이 천연두로 죽었다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고, 한순간에 가문이 무너져 내린 허망함과 슬픔을 견디는 마음을 담음(한이 서린 시를 흥으로 풀어낸 곡. 정약전 관련 흑산도 이야기도 추가)

다) ‘울정주점 두 갈래 길’

두 형제가 유배를 가는 길에 울정주점 두 갈래길 앞에서 서로 나눈 마지막 인사와 마음을 담은 두 가지의 시로 만든 두 곡으로 아우의 시는 슬픈 마음이라면, 형의 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아우를 달래는 마음을 담음

나. “영남 한량무” -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강동욱 (10')

- 1) 소개: 조선시대 민속무용 중 하나. 무용극 형태의 춤으로, 그 내용은 과거 시험에 낙방한 한량을 비롯해 별감과 승려가 서로 기생을 피려고 하는 행태를 담고 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에서 성행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수한 민속무용이라기보다 교방계류의 무용극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 “남도소고춤”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살풀이 전수자 이지은 (10')

- 1) 소개: 김평호류 남도소고춤은 남도 신명을 간직한 춤으로 전라도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소고. 버꾸춤의 맥락을 이어받아 남도적 흥과 멋의 절정체를 이루며 호적시나위에 신명을 녹여내는 가.락.무 일체의 축제적 춤이다.

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줄타기 “판줄” - 김대균.한산하 (30')

- 1) 구성: 국가무형유산 줄타기보존회 보유자 김대균 / 줄광대 한산하(이수자)
장단 우정운(이수자), 쇠 조민형(전수생), 피리 최민기, 대금 유명성, 가야금 김호준(삼현육각)
- 2) 마당별 주제: 첫째마당(줄광대와 함께하는 줄타기 이야기와 줄고사 및 연주), 둘째마당(어릿광대와 줄광대의 줄소리), 셋째마당(새 광대들의 줄놀이)
- 3) 소개
줄타기는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었으며, 초대 인간문화재에 故김영철(金永哲) 명인이 인정되었고, 제2대에는 그의 제자 김대균(金大均) 명인이 2000년 최연소로 인정되었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줄타기로써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이다. 현재 줄타기의 본향 과천에서 예능 보유자 김대균 명인이 이수자·전수생 등 20여 명을 지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한다.

붙임 2. 공연자 프로필

[10. 26.(토) 출연진 프로필]

가. 조현서 (피아노)

- 금호영재콘서트(2024. 5)
-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작곡) 수료
- 음악세계 전국결선 및 서울지역 대상
- 삼익자일리콩쿠르, 음악춘추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한국리스트콩쿠르 1위
- 포아영재콩쿠르 포아음악상 및 조인트 리사이틀(우인아트홀)
-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공연

현) 서울대도초등학교 6학년

마스터클래스 : Enrico Pace, Kevin Kenner, 신수정, 주희성 사사 : 노한솔

나. 윤연준 (피아노)

- 2024 자작곡 프로젝트'움' 런던 바비칸 센터 초연
- 2024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지원사업 프로젝트 선정
- 2024 서울 중력장'명상과 사색, 그리고 공명'
- 2023 여수국제음악제 자작곡 독주 초연
- 2019 프랑스 피아노 캠퍼스 국제콩쿨 우승
- 2018 런던 길드홀 골드메달 한국인 최초 수상
- 2018 BBC 뮤직 매거진 라이징 스타 선정

줄리아드 음악원, 예일대 음악대학, 영국 길드홀 음악원(전액 장학생) 졸업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DAAD장학생 수료)

Hastings Philharmonic, Guildhall Symphony Orchestra, Orchestra di Padova e del Veneto, Fort Worth Symphony 등과 협연

다. 김기선 (성악 테너)

- 유럽과 일본의 중요 콘서트홀과 오페라극장에서 마술피리, 삼손과 데릴라,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라 보엠 등 오페라와 콘서트 친회 이상 출연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궁정 초청 독창회 등 독창회 다수
- 오스트리아 국영 TV 등 유럽 언론에서 특필
- 캐나다 초청 순회공연
-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내는 성악가로 선정되어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
- KBS 불후의 명곡 조수미편 우승
- YTN "유럽을 사로잡은 오페라 주역" 출연
-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독창자 공연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졸업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어 음악원 외래교수역임.

현 오스트리아 멜랑쉬 오페라단장

라. 이석중 (바이올린)

-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화경향 콩쿠르 등 입상, 한국음악협회 주관 해외파견 콩쿠르 현악부문 전체 대상(병역특례)
- 예원·서울예고를 빛낸 음악인상 수상
- KBS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주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 경북도립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The Juilliard School pre-college, 예원학교·서울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독주자 과정 졸업
미국 Yale 대학교 석사(M.M) 및 최고연주자과정(AD) 졸업(Harry B.Jepson 장학금, Irving S.Gilmore 장학금)
현) 국립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 교수
아베코 스트링 콰르텟 리더,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 음악감독, 서울 튜터앙상블 악장, TIMF 앙상블 단원

마. 장우리 (첼로)

- 중앙일보 콩쿠르 1위, K.Davidoff 국제 콩쿠르 2위, W.Giesecking 국제콩쿠르 1위
- 2015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수석 졸업

독일 자브뤼헨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현) PACE 앙상블, 클래식 찬 첼로수석, 첼리스트, 서울모던앙상블 멤버 및 한국 영아티스트협회 이사

연세대, 명지대, 선화예중 출강

바. 김은찬(피아노연주)

-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Yamaha Rising Star Series 데뷔
- 중앙음악콩쿠르 입상
- KBS 클래식 라디오, 대구MBC, 극동방송 출연
- 대구 콘서트 하우스 베토벤 소나타 전곡 녹음 프로젝트 참여
- 소프라노 홍혜란 Recital,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2023 김은찬 귀국 피아노 독주회 등 솔로와 챔버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활동 중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역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우등 졸업

New England Conservatory 석사과정 우등 졸업

Yale University School of Music Artist Diploma 전액 장학생 졸업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 전액장학생 취득

현재)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10. 27.(일) 출연진 프로필]

바. <시락밴드>

- (1) 소개: 시와 음악, 시간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밴드

시락밴드는 총 4인으로 구성된 전통음악기반 밴드입니다. 실학가들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게 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존재하는 시들과 만나보려 합니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문학과 음악의 새로운 만남을 선사합니다.

- (2) 구성 및 프로필

대표 및 진행. 김솔지(타악)

- 2015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 2020 롯데장학재단 청춘열전 출사표 경연대회 대상
 - 2022 수립문화재단 수립아트랩 선정 <FNL 소르지곳> 제작
 - 2023 국립극장 기획공연<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음악 감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졸업

송현주(소리)

- 2022 서울문화재단 1 Stage for 1 Player 공연예술분야 1인 플레이어 선정
 - 제22회 익산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 전남대학교 국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전문사 재학

오초롱(피리)

- 국가무형문화재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제34회 동아국악콩쿨 금상
 - 국립국악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강사 역임
 - 2023 수립문화재단 수립아트랩 선정작 <재래(再來)악 I: 종묘> 제작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졸업

김민지(피아노)

- kbs 2tv drama “공항가는 길” ost part2. ‘그래도 될까요’ 작사/작곡
 - 국립극장 해오름공연 뮤지컬 태백산맥 작/편곡
 -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 싱글앨범 ‘소리’ ‘초희의 시’ ‘우리 계속 사랑을 하자’ 발매
- 동아방송예술대학 작곡/프로듀서 졸업

사. “영남 한량무” - 강동욱

- (1) 소개: 조선시대 민속무용 중 하나. 무용극 형태의 춤으로, 그 내용은 과거 시험에 낙방한 한량을 비롯해 별감과 승려가 서로 기생을 꾀려고 하는 행태를 담고 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에서 성행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수한 민속 무용이라기보다 교방계류의 무용극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경남 무형유산 진주오광대 예능 보유자
- 경남민예총 이사장 역임
-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역임
- 풍류춤연구소 대표

아. “남도 소고춤” - 이지은

- (1) 소개: 김평호류 남도소고춤은 남도 신명을 간직한 춤으로 전라도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소고·버꾸 춤의 맥락을 이어받아 남도적 흥과 멋의 절정체를 이루며 호적시나위에 신명을 녹여 내는 가락·무 일체의 축제적 춤이다.

- 단 무용단 대표
 -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춤 전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임학선 인문춤아카데미 연구원, 숙명여자전통문화대학원 석사

자. 전통 줄타기 “판줄”

- (1) 소개: 줄타기는 줄광대가 어릿광대와 함께 삼현육각의 연주에 맞추어 익살스러운 재담과 춤, 소리, 아니리를 섞어가며 갖가지 잔노릇(기예)을 관객과 함께 벌이는 놀음이다. 마당놀이의 꽃이라 불리는 줄타기는 문헌에 승도(繩度), 주색(走索), 색상재(索上才), 답색희(答索戲), 희승(戲繩), 항희(恒戲)등으로 나타난다.

- (2) 구성: 국가무형유산 줄타기보존회

보유자 김대균, 줄광대 한산하(이수자), 장단 우정운(이수자), 쇠 조민형(전수생), 피리 최민기, 대금 유명성, 가야금 김호준

붙임 3. 사진, 포스터

<p>실학연희</p> <p>도도출판사출판부 실학박물관 개관15주년 기념 특별공연 2024. 10. 26.(토) - 27.(일) 14:00 실학박물관 다산정원</p> <p>첫째 날 <꽃시> <잠자람과 베토벤의 만남></p> <p>둘째 날 <전통 여승> <산행연희와 함께하는 실학></p> <p>포천시(대표) 노재이(출처:이노스 문화재단(대표)) 김기현(산악) 김문희(이시종) 장우희(이시종) 등 시악밴드 (김대균, 오승환, 김민재, 김태현, 김민우, 김대준, 노스기) 장우희(출처:이노스 문화재단(대표)) 김대균(이시종) 김대준(이시종)</p>		
<p>▲ 포스터</p>	<p>▲ 조현서(다산정원 “자산어보” 공연)</p>	
<p>▲ 윤연준(피아노 공연)</p>	<p>▲ 이석중(피아노 협연)</p>	<p>▲ 김은찬(피아노 협연)</p>
<p>▲ 김기선(성악)</p>	<p>▲ 정우리(첼로 협연)</p>	<p>▲ 강동욱(영남한량무)</p>
<p>▲ 시락밴드</p>	<p>▲ 이지은(남도소고춤)</p>	<p>▲ 김대균, 한산하(판줄)</p>



▲ 판술 공연